

무역영어 + 국가공인자격

〈무역영어〉는 무역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영문서류 작성 등 무역관련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1967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시행되어 온 무역 관련 자격시험입니다.

자격개요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2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3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합격결정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2018년 시행일정

회별	검정방법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회	필기	1·2·3급	04.27~05.03	05.20	06.19
2회	필기	1·2·3급	08.24~08.30	09.16	10.11
3회	필기	1·2·3급	11.09~11.15	12.02	12.27

* 공인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 2016-1호

* 공인자격관리자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를 잡아 잡(Job) 취업에 성공하다!!

김지은



미션,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라

저의 첫 직장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잡은 것은 무역영어 자격증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 무역에 대한 전반적이고 넓은 지식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던 중 무역영어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무역 전공이었기 때문에 쉽게 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과 생각하지 못했던 실무 부분 때문에 취득이 꽤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더 취득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취득을 하게 된다면 무역지식이 풍부해지고 그로 인해 취업, 특히 면접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역영어 취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1과목과 제 2과목인 영문해석과 영작문은 책으로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 3과목인 무역실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부분이었기 때문에 책으로만 공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도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학습서에 있는 이론을 꾸준히 반복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서적도 찾아보고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취업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께 물어보며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무역영어 1급과 2급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영어로 취직하다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이력서에 적힌 무역영어 자격증을 보며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되면 면접관들이 항상 무역영어 자격증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무역영어 자격증이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았고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전공수업 때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분명 무역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이었던 곳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면접관분들께서 무역영어 자격증에 관심을 보이셨고 실제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비즈니스영어와 무역거래조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무역영어를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 1과목과 제 2과목이었던 영문해석과 영작문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면접 도중 돌발 상황이었던 인도 바이어와의 통화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이 되었고 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무역 업무를 담당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역영어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와 거래를 하거나 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무역조건을 써가며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어 직접적으로 바이어들과의 만남이 있었을때도 기본에 충실했던 무역영어 공부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전문적인 무역 용어를 쓰면서 계약도 따내고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역영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 없었다면 전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무역 업계에서의 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엔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취득 전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첫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현재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역영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러갔을 당시 담당자 분께서 무역영어 자격증을 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고 전공이 무역이고 또한 무역영어 자격증까지 있으니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며 저를 채용 하셨습니다.

현 직장은 전 직장보다 거래하는 나라가 많고 부품도 많아서 보다 자세한 무역 지식이 필요한데 무역영어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며 얻게 된 지식을 통해 전 직장에서도 보다 일 처리를 더욱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결국 어느새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 저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당시 공부했던 무역영어 학습서를 보면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하다 보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실무와 결합하여 생각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역영어 자격증이 없었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무역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과연 첫 직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자격증을 원한다면 그럴수록 무역영어는 더욱 필요합니다. 특별함 이전에 누구나 인정하는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하면 무역영어는 무역 업계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라면 꼭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